

'참 나쁜 사람' 노태강 차관, 평창 준비에 '참 바쁜 사람'

돌아온 노 차관이 잠 못드는 이유

"어제도 올림픽 생각에 새벽 2시에 벌써 깨 모든 부분에 있어 성공적 개최 되도록 최선 예술 분야까지 시야 넓혀 시설물 사후 활용"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효율적인 대회시설 활용 등을 다짐한 그는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올림픽 준비에 여념이 없다. 뉴스시

2013년 4월 승마대회에서 판정시비가 일어났다. 당시만 해도 큰 주목을 받는 사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갑자기 개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거듭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정유라의 딸 정유라가 출전한 대회, 특히 정유라가 편파판정의 피해를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었다. 노태강 당

시 문체부 체육국장은 승마계의 파벌싸움 중심에 최순실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통령은 장관에게 노 국장을 "참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노 국장은 부처를 위해 징계를 자처했다. 대통령이 원하는 것과 정 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는 진실 그대로의 보고서를 직접 손님과 소신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야 했지만 '참 나쁜 사람'은 결국 좌천됐다. 지난해 대통령은 중앙 부처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물러난 노 전 국장을 향해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라고 말했다고 결국 그는 공직을 떠났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고 진실을 밝혀 30년 공직생활을 마감했던 노 전 국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문체부 제2차관(체육담당)으로 돌아왔다.

최순실이 온갖 이권에 개입하려 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가 문재인 대통령이 노 차관에게 맡긴 중요한 임무다. 체육계 전반의 비정상적 정상화도 노 차관의 중요한 숙제다. 노 차관은 5일 체육기자들과 만났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효율적인 대회시설의 활용 등을 다짐했다. 노 차관은 "어제보다 자다가 올림픽 생각에 새벽 2시에 벌써 깬다. 올림픽까지 시간이 많이 없다. 개막식, 대회성적, 흥행, 자원봉사자, 시설의 사후 활용 등 모든 부분에서 성공적 개최를 이룰 수 있게 실무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은 대회 뿐 아니라 경기장의 사후

활용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 차관은 "2022년에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평창과 강릉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한 최적의 전지훈련지가 될 수 있다.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후 존치와 철거, 그리고 스포츠에만 국한되지 않은 문화, 예술 분야까지 시야를 넓혀 시설물 활용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노 차관은 1988서울올림픽, 2002한일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실무자로 경험했다. 관록과 뛰어난 실무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에게도 진실과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진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ROAD FC가 함께하는 MBC-TV의 격투 오디션 '겁 없는 녀석들'의 출연진들. 톱 모델 한혜진이 MC를 맡고, 개그맨 정준하, ROAD FC 정문홍 대표, 슈퍼주니어 이특 등의 출연이 확정됐다. 사진제공 | ROAD FC

'겁 없는 녀석들' MC-멘토 군단 확정

모델 한혜진 'MBC 격투 오디션' MC 윤형빈·정문홍·권아술 등 멘토 합류



ROAD FC(대표 정문홍)가 함께하는 대국민 희망 프로젝트인 MBC-TV의 격투 오디션 '겁 없는 녀석들'(ROAD to a dream)(제작 AKATV)이 출연할 MC와 멘토 군단이 최종 확정됐다.

톱모델 한혜진이 진행을 맡고, 개그맨 정준하, ROAD FC 정문홍 대표, 슈퍼주니어 이특, 개그맨 윤형빈, ROAD FC 라이트급 챔피언 권아술, 소사이어티 게임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권민석까지 최정호 멘토 군단이 함께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지상파 격투 오디션 '겁 없는 녀석들'에 출연해 각각 MC와 진행자로서 격투기에 도전한 참가자들 곁을 지킨다.

한혜진은 MBC-TV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맹활약하며 연일 주가를 높이고 있다. '겁 없는 녀석들'을 통해 첫 메인 MC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예능 행보를 이어가게 됐다. 개그맨 정준하는 평소 종합격투기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멘토로 낙점됐다. MBC-TV 인기 오락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끝없이 도전했던 경험을 충분히 활용,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대한민국이 낳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ROAD

D FC의 수장 정문홍 대표는 과거 격투기 오디션을 통해 유망주를 발굴해 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겁 없는 녀석들'에서 지원자들을 향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또 하나의 스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특은 오디션 프로그램 첫 출연으로, '겁 없는 녀석들'에서 특유의 재치 있는 진행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윤형빈은 ROAD FC를 통해 종합격투기 프로 무대를 경험한 파이터기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도전자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ROAD FC 라이트급 챔피언 권아술은 챔피언이 되기까지 쌓아 올린 종합격투기 내공을 발휘해 챔피언의 눈으로 참가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조언과 격려를 하게 될 것이다. '소사이어티 게임'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ROAD FC 파이터 권민석은 과거 격투기 오디션에 출연해 준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경쟁자를 통해 최우의 1인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참가자들에게 배와 살이 되는 도움을 줄 계획이다.

'겁 없는 녀석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지상파 격투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현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길이 되고 싶다는 로드 투 어 드림(ROAD to a dream)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됐다. '겁 없는 녀석들'을 통해 선발된 최후의 1인에게는 우승 상금과 함께 ROAD FC에 출연하는 프로 파이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프로 무대에 데뷔할 기회를 준다. 최현길 전문가 choing2@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실수 용납 안되는 그라운드서 '수술실 나'를 보았다



정형외과 전문의, 순번 정해 야구장 지켜 매타석 다른 것처럼 수술도 매번 다르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스포츠는 무엇일까?

각 종목 팬들의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해마다 최다관중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프로야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필자는 프로야구 LG 트윈스 필드닥터 그룹의 일원으로 LG의 잠실구장 홈경기 때마다 경기를 참관하고 있다. 필드닥터는 경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의사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순번을 정해서 LG트윈스의 홈경기는 반드시 지킨다. 선수들이 경기 도중 많은 부상을 당하지만,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덕분에 프런트판계자와 함께 경기를 지켜보는 것으로 일과가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다.

프로야구라는 인기스포츠를 관중석이나 TV가 아닌 선수들과 가까운 곳에서 보는 것은 매우 특별한 기회다. 필드닥터가 경기를 지켜보는 곳은 본부서 3루 쪽에 있는 방이다. TV중계 화면에는 불투명한 유리로 막혀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LG의 필드닥터이지만 3루 쪽에 가깝게 있다보니, 경기

중에는 원정팀 선수들을 주로 가까이에서 보게 된다.

미트에 평평 꽂히는 투수의 강속구와 타자들의 호쾌한 장타, 모기에 가까운 수비 등 보는 것도 신나는 일이지만, 반투명 유리창 너머로 타석에 들어서기 전까지 배팅 연습을 하는 타자들을 관찰하는 것은 TV로만 경기를 볼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이다.

지금은 메이저리그 밀워키로 떠난 NC 에릭 테임즈는 웬만한 사람의 허벅지 두께와 같은 팔뚝을 자랑했다. 특히 한 손으로만 배트를 잡고 강하게 들리는 모습은 팔뚝에 그려진 문신만큼이나 위압적이었다.

내년이면 경기장에서 볼 수 없을 국민타자 이승엽이 타석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는 여전히 능률한 뒷모습에서 웬지 모를 감동과 존경심이 생겼다. 필자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타자는 넥센 서건창이었다. 본부서 반투명 유리창 거울삼아, 자신의 타격 폼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하던, 그 진지한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유리를 통과하는 듯한 뜨거운 에너지 탓에 혹시 눈을 마주치면 이내 시선을 돌려야 했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신고선수로 시작해 KBO리그 최고타자의 위치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14년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전대미문의 한 시즌 200안타를 달성한 것은 앞으로 쉽게 깨지기 힘든 대기록이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선수이지만 여전히 똑마르고 배고파 보였다. 진정한 프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은뎀으로 보여주려는 것 같았다.

필자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무릎관절 환자

를 진료하고 수술을 한다.

수술은 수술실에서 하지만, 수술이라는 전체 과정은 사실 수술실 이전에 교수연구실에서부터 시작된다. 정형외과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세부전공을 정해 지도교수님의 수술을 수습이 참관했지만, 막상 전문의가 되어서 내 환자를 처음 수술할 때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처음 수술집도가 예정됐으면 교과서와 논문으로 공부를 하고 다른 의사들의 수술 동영상 찾아보며 스승과 선배들의 조언을 구해서 수술 준비를 했다. 그렇게 준비한 수술은 비록 수술 전에는 경험이 적어 걱정도 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어느덧 많은 수술 방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요즘은 종종 바쁘다는 핑계로 수술 전 준비에 소홀한 나를 발견하곤 한다. 타자들에게 매 타석이 같지 않은 것처럼 비록 같은 수술이라도 같은 환자가 없고 동일한 수술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

환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기고 몇 시간 동안 마취를 하고 누워있기로 한 사람입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 한 치의 소홀함도 용납되지 않는 이유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지만 한 순간도 소홀함이 없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모습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본다. 나는 과연 초심을 지키고 있는가?

환자의 병력, 이학적 검사조건, 엑스레이, MRI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해 수술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수술과정을 머리 속에 그리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 본다. 나는 이제 내만의 타석, 내 환자가 기다리는 수술실로 향한다.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늘 부상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필드닥터는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의사를 말한다. 8월 29일 잠실에서 벌어진 롯데-두산전 도중 동료와 충돌해 부상당한 김재호가 들것을 타고 엠블런스로 옮겨지고 있다. 뉴스시

음주운전 물의 강정호, 체육연금도 못 받는다

'만취폭행' 김동선 이어 2번째 연금 박탈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형(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가 더 이상 체육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더불어 이제까지 받은 연금 일부도 반납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6일 "2016년 음주사고로 지난 5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정호의 연금 수령 자격이 최종 박탈됐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2010년 광주아시아인게임과 2014년 인천아시아인게임에서 한국 야구대표팀 일원으로 출전해 두 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강정호

국가대표 연금 규정에 따라 그동안 매월 3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치로 인해 이제 단 한 푼의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형이 확정된 지난 5월 이후 받은 90만 원의 연금도 환수조치 된다.

볼미스러온 일로 특정선수가 연금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2014년 인천아시아인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동선(28)이다. 김동선은 '만취폭행'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강정호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연금자격이 박탈됐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

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재판 결과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까지 드러나 이른 바 '삼진아재'으로 미국 입국까지 거부됐다. 소속구단인 피츠버그는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뛰지 못한 강정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 아길라스 시바에나스와 그의 계약을 상사시켰다. 강정호는 10월부터 윈터리그에 참가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award@donga.com